

지식미술관, 의문과 논평

★★★★

토발미술관 8월 28일 - 10월 25일

기본적인 영어만 알아도 쉽게 이해하고, 또 웃을 수 있는 댄의 드로잉, 개념 예술에 심취한 듯 보기에도 복잡하고, 또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리아의 설치 작업. <지식미술관>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첫인상이자, 피할 수 없는 선입견이다. 무꺼운 마커로 전시장 벽에 시원시원하게 그려낸 댄의 대표 작업은 물론 세계 각국의 호텔에서 목욕대, 벽에 걸린 회화 작품을 기록한 'Art in Hotel'(호텔에 있는 예술 작품)(2008-2015) 모두 벽에 연필로 미세하게 세긴 작품들을 보지 못해도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 명쾌하다. 여행을 하며 흥미로운 장면을 똑딱이 카메라로 기록하는 댄 퍼즐스키, 그의 깔끔하고 독특한 시선은 그레피티를 지우는 동시에, 흰 페인트로 그레피티의 내용과 궤적을 그대로 살리는 사진 작업에서도 드러난다. 반면에 리아 파랍스키는 93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하며 얻어온 해와 어석을 기반으로 그너만의 주관적인 미술사와 '지식'을 현대기 형식으로 재한한다. 주관성은 때로 옥스파드에 있는 미술관에서 수집한 가사첩사 모양의 팔찌나, <How to Survive & Prosper as an Artist: Selling Yourself Without Selling Your Soul

알레산드로 멘디니, 디자인으로 쓴 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0월 9일 - 2016년 2월 28일

요즘 디자인 세계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최대한 배려하게 없애내야 곧 '감각 있는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핸드폰에도 종종 곁에는 애플의 아이폰의 미적 철학도 그렇고,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세련미'를 강조한 작업을 내놓는 게 추세다. 하지만 이탈리아 디자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세련미보다는 익살스러운 디자인과, 눈이 아를 정도로 화려한 색채 감각으로 유명하다. 리빙 브랜드 알레시와 협업해 내놓은 와인 오프너는 만세를 하듯 양팔이 벌어지는 사람의 형태로 디자인했고, 그의 대표적인 '포루스트 의자'는 화려한 색과 점으로 동화적인 두드러기를 얻었기때는 패턴으로 뒤덮여 있다. 단순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디자이너라면 멘디니의 작업을 보고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사실 '포루스트 의자'는 일반 가정보다는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예술 조각 같지만, 멘디니가 정확히 의도한 바다. 10세기 후마 프랑스에서 유행한 순수미술 기법인 점묘법을 가구에 입히며,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디자인 철학 중 하나는 '유행이 지나도 당신의 위치를 유지하라'이다. 총 600여 점으로 구성된 전시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DDP에서 열리는 멘디니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인생의 반을 건축 전문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다, 50대의 늦은 나이로 디자인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음을 감안하지 않아도 그가 쌓아온 드로잉과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화려하다. 작품 선정은 물론 전시장 디자인까지 작가가 기획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전보다는 객관을 추구하는 멘디니의 작업은 DDP의 비대칭적인 공간에 어울릴 수밖에 없다.



(아티스트로서 생존하고 반영하는 방법: 영혼을 팔지 않고 작업을 파는 방법)>을 현대미술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서적으로 꼽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서도 보여진다. 물론 작가에게 직접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리아의 작업은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궁금하면 일단 구글로 검색을 해보는 노력은 필수다. 리아 또한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후, 이웃 나라인 헝가리의 뉴스를 처음 접하며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 사진을 펼쳤으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Museums and galleries

국제갤러리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우고 론디노네의 신작은 뉴욕 록펠러 센터 앞에 설치됐던 'Human Nature(인간의 본성)'의 연장선으로 만든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The Inquisitive', 'Nosy' 등 순서대로 '호기심쟁이'와 '참견쟁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모두 열등, 감정도 없는 거대 고인돌처럼 생겼다. ▶ 10월 11일까지.
하종현 개인전 한국전쟁 이후 미군 군량미를 담은 포대자루를 회화의 재료로 사용한 하종현.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당시 시대 상황과 아픔을 되짚어서 소회시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 하종현의 최근 작품은 마포 천 위에 유채로 새로운 색과 색을 구사한다. 개인적으로 패배를 철조망으로 얹은 '작품 73' 같은 역동적인 작업이 그림이지만, '이후접합'은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재료로 역사를 부각지 않는다. 지금 시대에 충실한 21세기 작품이다. ▶ 10월 18일까지. kukje.org. 종로구 삼청로 54, 02-735-8449, 월-토 10:00-18:00, 일-공휴일 10:00-17:00, 무료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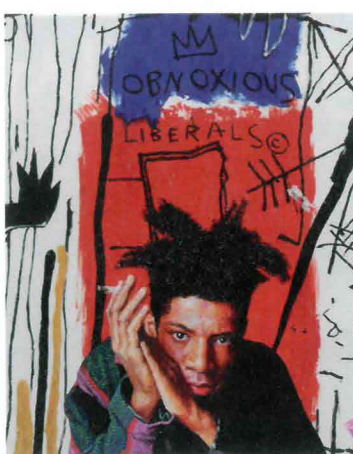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손의 축제 손으로 만드는 공예 작업을 중심으로 생활미술을 조명하는 그룹 전시. 지난 3년간 남서울미술관을 빛낸 작가들의 신작도 열볼 수 있다. 그중에는 허영목 사진가가 수집하고, 그것을 옷칠로 칠해 재해석한 원형 테ابل도 보이고, 실제로 작가가 모은 빈티지 소품은 그의 사진 작업의 소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도의 디자이너자 대표인 이윤신이 개진 도자기를 쏟아내는 별동벌처럼 매단 설치 작업도 있다. 은박접시는 미술한 것을 입은 여성의 초상처럼 생생한 미술이나 공예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 지역 박물관의 민속품이나 유물들 지역 슈미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재현한 이의 '더 슈퍼 뮤지컬 프로젝트'다. ▶ 11월 8일까지. sema.go.kr. 노원구 동일로 1238, 02-2124-8800, 월-금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무료 입장

하이트갤러리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한 편의 소설을 읽듯 느껴보라는 취지로 기획된 그룹전은 해설 중편 소설에서 따온 제목부터 감성적이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서상의 개인전 Temple of The Artist

갤러리 기체 10월 24일까지

평소에도 도트 무늬 원피스를 입는 쿠사마. 그녀의 옷차림은 작업이 곧 삶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고상한 옥색스트라와 선율을 캔버스에 옮겨 그려낸 칸딘스키 또한 말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걸맞은 흰 셔츠와 넥타이 차림을 고수했다. 이렇게 유명 작가들의 설치작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옷차림 속에서도 작가의 성격은 물론 이들이 하는 작업의 성격까지 알 수 있다. 서상의은 이런 상호 관계를 화해 연적인 '화가의 성전'을 통해 유쾌하게 부각시킨다. 작가는 예술계의 대가로 꼽히는 작가들이 스스로의 대표 작업을 배경으로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누가 앤디 워홀이든 도 폴록이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각각의 작가가 캔버스를 찢고 악수를 권하는 극사실주의 작업은 아니다. 그리고 라우센버그의 침울한 표정과



분위기는 캔버스에 담긴 회화적 기술과 강렬한 색채를 압도한다. gallerykiche.com. 마포구 성미산로 161-10 ☎ 070-4237-3414 ☎ 화-금 10:00-19:00, 토 11:00-18:00 W 무료 입장

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시, 여자와 술을 사랑했던 40대 표현주의 화가였으며, 그는 죽음에 가까워지며 외로이 자화상을 완성하는 데 몰두했다. 비록 허구의 인물이지만, 이렇게 클링조어가 겪은 마지막 여름 이야기에 빠져들면 전시장 공간과 건축 요소를 부각시키는 이은우나 로마제의 설치 작업 보다는 회화와 사진 작업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 모야가 맺힌 유두와 사촌기 소녀의 손을 주인공으로 확대한 정화승의 사진, 그리고 거친 붓질로 뿔뿔이 분리된 분위기를 그려낸 박형지의 회화 작업 모두 작가들의 감성선이 더욱 격렬하게 드러나니까. ▶ 12월 12일까지. hitecollection.com, 강남구 영동대로 714, 02-3219-0271, 월-토 11:00-18:00, 무료 입장

페리제 갤러리
이흥구 개인전 Gallus '갈루스(gallus)'는 라틴어로 수탉을 의미한다. 전시는 제목 그대로 토종 수탉의 뼈를 16배 확대한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 웅장한 사람보다 큰 닭발의 뼈도 있고, 닭 한 마리의 뼈대로 방 하나를 삼킨 수탉도 있다. 도발도 덕과 미키마우스의 골격을 재현해온 이흥구 작가의 작업이다. 동물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몰두했던 그가 닭으로 화두를 옮기게 된 계기는 바로 '지맥', 배탈시켜 먹고 남은 닭뼈를 재조립해보니 닭 한 마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수탉을

연구하게 됐다. 작가는 한국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치킨을 보며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닭의 모습이 꿈을 접고 현실에 휩몰린 직장인 같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시장을 찾은 이들의 눈에는 아마 공룡으로 인식될 것이다. ▶ 11월 7일까지. perigee.co.kr, 서초구 반포대로 18 지하 1층, 070-4676-7096, 월-토 10:30-18:30, 무료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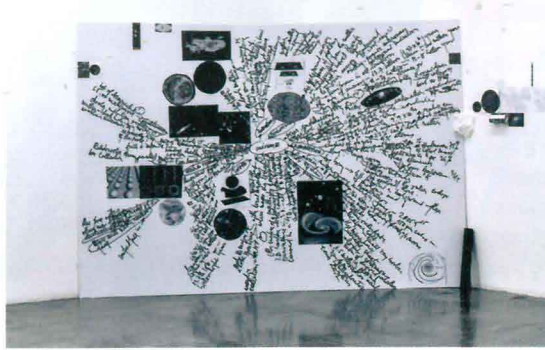
아틀리에 에르메스
이수경 개인전 믿음의 변식 전문 도예가들이 버린 백자와 청자의 파편을 모으는 이수경. 그녀는 이런 조각들을 24K 금박으로 이어, 하나의 울룩불룩한 도자기를 완성하는 '변역된 도자기' 작업으로 유명하다. 이번 개인전에서도 '금박'이 작업의 소재로 등장하지만, 이번엔 이수경이 내놓은 오브제는 금을 입은 토이다. 보여지는 형태만 비교하면 도자기 작업에 비해 단조롭지만, 고귀하게 빛나는 돌은 작가가 강진의 한 수님을 찾아가서 받은 두 개의 돌 중 하나를 전시한 것이다. 한마디로 돌에게 '그곳에 있었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시적인 표현만은 아니라는 사실. 다른 돌의 행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 12월 20일까지. maisonodanpark. hermes.com,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3층, 02-544-7722, 월-화-목-일 11:00-19:00, 무료 입장

Knowledge Museum, Doubts & Comments

★★★★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rough Oct 25

Closely resembling what you might find in newspaper comics, Dan's wall drawings are hard-hitting, comprehensible and good for a laugh. But Lia's work isn't so straightforward. It's hard to even draw any conceptual connections between her arrangements of seemingly random objects, let alone read her handwriting. Such first impressions are inevitable upon entering "Knowledge Museum, Doubts & Comments," and are quite true to defining the nature of the artists' works—but don't be rash to pick favorites based on surface judgments. At the exhibition, you'll not only find Dan's signature marker drawings executed in thick, black lines, but also "Art in Hotel"—a series of photographs on various hotel room paintings he found during his frequent travels from 2008–2015, all shot with a compact point-and-shoot. Despite the faintly scrawled text on the wall, the titles of works like "Art in Hotel" and "Erased Graffiti" point directly to the concept of the work. The photo series "Erased Graffiti" does in fact, document erased graffiti found all over the world. But the question of what is erased is debatable, as seen in the efforts to cover-up certain graffiti, the content of the drawings are merely re-represented and traced out like superb stencil jobs done in white paint. Lia's work, on the other hand, is conceptually attached to personal poetry and narration, as shown in her subjective timeline on art



history. Duchamp's urinal makes the cut as a notable event in defining the history of contemporary art (as most historians would approve), but so does a neon, barbed-wire bracelet that the artist purchased from Oxford, as well as sculptor's guide called *How to Survive & Prosper as an Artist: Selling Yourself Without Selling Your Soul*. Without having a one-on-one chat with the artist herself, it's difficult to figure out how the selection and the curation came about, but some questions can be answered with a bit of Googling on the spot, just as the artist intended and did in the past. After Romania broke from its Communist regime, Lia also sat down with a paper dictionary to translate the news of her neighboring country, Hungary. So it's not really a stretch for the artist to ask the viewers to adapt to her studio nature. After all, it is dubbed the "Knowledge Museum," and knowledge doesn't come overnight.

Alessandro Mendini, the Poetry of Design



Dongdaemun Design Plaza (DDP), Oct 8–Feb 28, 2016

In the design world these days, good design is often defined by simplicity—a functional product free of frivolous details and adornments. Apple swears by similar design principles, and as a result, the company often ranks No. 1 on the list for best-selling smartphones in the world every year. In short, the aesthetically trend and design tool of choice seems to be "sophistication," especially among young and emerging designers. But Italian designer Alessandro Mendini, also known as the "Father of Radical Design," is more concerned with witty and colorful designs and

patterns that verge on the realm of being considered fine art. In collaboration with production brand Alessi, Mendini designed a wine opener with a smiling human-like "head" for its revolving screw and "arms" that merrily open in the shape of a Y. His infamous "Proust Chair" is covered in a field of paint speckles that looks something like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meets a really bad case of the chicken pox. So, if you are a designer with a taste for minimalism, his elaborate design may be a bit of a scare, as the "Proust Chair" sits more comfortably in an art museum than in a regular household. But this is exactly what the artist intended, as the dotted pattern speaks to Pointillism. By dressing an everyday object in the patterns of a visual arts movement, he wanted to break the seemingly inflexible boundaries between art and design. With over 600 works on display, it's the first solo exhibit of such a huge size to take place in Eastern Asia. Remembering that he's now 84, the size of his prolific portfolio is no big surprise, but Mendini spent half his life as the editor-in-chief of an architecture magazine. It was not until he was in his '50s did he decide to become a designer and an architect. So, it makes complete sense that the dedicated designer has not only taken the effort to select the appropriate pieces for the show, but to also take part in designing the exhibition halls himself. And he has chosen the best museum in Seoul to showcase his curvy works—Zaha Haidid's asymmetrical DDP

photographs like a mother's breast with milk dewed on her nipple and roughly marked paintings of cherry blossoms will probably win you over, because faux crown molding sculptures and conceptual wall drawings don't tend to bring tears to the eyes. Through Dec 12. 714, Yeongdong-daero, Gangnam-gu (hitecollection.com, 02-3219-0271). Mon-Sat 11am–6pm. Free.

Perigee Gallery
Gallus In Latin, a "gallus" is a rooster, and that is exactly what you'll find at this exhibition. Simply put, the sculptures are skeletons of male Korean chickens magnified 16 times larger than their actual size. Famous for modeling skeletal sculptures of animal-based animation characters like Mickey and Donald Duck, Lee Hyung-gu moved on from mice and ducks after assembling the chicken bones left over from a hearty combo of chimaeak (fried chicken and beer). Upon realizing that the whole chicken that he ordered was missing a wing and more, Lee saw the average working Korean man who has succumbed to reality to give up his dreams, as being akin to chimaeak, which, without a doubt, is Korea's favorite late night dinner, and showcased through Nov 7. 18, Banpo-daero, Seocho-gu, B1

photographs like a mother's breast with milk dewed on her nipple and roughly marked paintings of cherry blossoms will probably win you over, because faux crown molding sculptures and conceptual wall drawings don't tend to bring tears to the eyes. Through Dec 12. 714, Yeongdong-daero, Gangnam-gu (hitecollection.com, 02-3219-0271). Mon-Sat 11am–6pm. Free.

Perigee Gallery
Gallus In Latin, a "gallus" is a rooster, and that is exactly what you'll find at this exhibition. Simply put, the sculptures are skeletons of male Korean chickens magnified 16 times larger than their actual size. Famous for modeling skeletal sculptures of animal-based animation characters like Mickey and Donald Duck, Lee Hyung-gu moved on from mice and ducks after assembling the chicken bones left over from a hearty combo of chimaeak (fried chicken and beer). Upon realizing that the whole chicken that he ordered was missing a wing and more, Lee saw the average working Korean man who has succumbed to reality to give up his dreams, as being akin to chimaeak, which, without a doubt, is Korea's favorite late night dinner, and showcased through Nov 7. 18, Banpo-daero, Seocho-gu, B1

Temple of The Artist

Gallery Kiche, through Oct 24

Kusama not only covers furniture and a giant pumpkin in her famous dotted patterns, but wears them as day dresses too. Kandinsky also dressed to match his orchestral music inspired paintings—he looked like a smartly-dressed conductor in gold-trimmed glasses paired with a white shirt and the famo. Looking at photographs of cubist artists, you can see that their artistic personas seeped into their lifestyle, as shown in Seo Sang-ik's "Temple of the Artist." In this painting series, Seo renders realistic portraits of artists posing in front of their most famous works, so it's quite easy to spot Warhol and Basquiat if you are familiar with their faces. But the picturesque portraits aren't the scene-stealers of the exhibit—check

out the image of a pouting Rauchenberg alongside the poised and smiling Lichtenstein and you'll understand. 161-10, Seongmisan-ro, Mapo-gu (gallerykiche.com, 070-4237-3414). Tue–Fri 10am–7pm, Sat 11am–6pm. Free.

(perigee.co.kr, 070-4676-7096). Mon–Sat 10:30am–6:30pm. Free.

Atelier Hermès
Saint Herreds Yee Sook-kyung is known for collecting shattered pieces of celadon deemed trash by master potters. She assembles the shards in a random fashion and adheres them together with 24K gold leaf to create a bulbous sculpture. At her solo exhibit at Atelier Hermès, the artist also makes liberal use of gold leaf, but uses it to cover the surface of a round, ordinary stone. Lookwise, the golden stone appears dull compared to the celadon sculpture, but the stone too, has a backstory. Yee presents one of the two stones she received from a Buddhist monk from Gangjeon-gun, and the clues to the almost mythical tale can be found in the title of the work. And "You Were There" makes you wonder where the other stone is. Through Dec 20. 7, Bosan-daero 45-gil, Gangnam-gu, 3F (maisonodanpark. hermes.com, 02-544-7722). Mon, Tue, Thu–Sun 11am–7pm. Fre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RhythmScope Taking the ideologies of Henri Lefebvre's *Rhythmanalysis: Space, Time and Everyday Life*, the exhibition also comments on

Critics' picks

정일주 (<파블리카트> 편집장)



Gallus 이흥구 작가는 미키마우스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뼈와 골격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장에는 가득 '닭'을 채워 가상공간을 완성한다. ▶ 페리제 갤러리 11월 7일까지

믿음의 변식 이수경 작가는 최면을 통해 목격한 전생의 장면들을 캔버스 위에 담거나, 대한 공포로 불안에 떨면서도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한 화가로 묘사한다. 전시의 주인공인 강서경, 김영은 등 작가 6인 또한 사진, 회화와 설치 작업을 통해 개개인의 예민한 감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하이트갤러리 12월 12일까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 제목을 따왔다. 소설 속 클링조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불안에 떨면서도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한 화가로 묘사한다. 전시의 주인공인 강서경, 김영은 등 작가 6인 또한 사진, 회화와 설치 작업을 통해 개개인의 예민한 감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하이트갤러리 12월 12일까지

Temple of The Artist 서상의 작가가 선보이는 전 세계 유명 작가들의 회화 초상 시리즈 각각의 대표작 앞에 선 필름 2쿠닝과 프랑스시 베이컨의 표정을 보면 작가 특유의 성격까지 짐작할 수 있다. ▶ 갤러리기체 10월 24일까지

리듬Scope 권용주, 남하연, 양정옥 등 작가 8인의 비디오 아트, 설치와 사진을 모은 전시, 감각스럽게 서버린 차로 인해 책을 읽고 쓰는 자바 시간을 때우는 문턱을 넘는 서머 시즌을 때우는 '감정노동자'들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노동을 들여다본다. ▶ 경기도미술관 11월 15일까지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

October 2015 **TIMEOUTSEOUL** 59